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동물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고전적인 <퀴즈탐험 동물의 세계>와 <동물의 왕국> 외에도 <동물농장>(SBS), <동물천하>(MBC), <주주클럽>(KBS) 등 다양한 형식과 소재의 TV 동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완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종류도 개, 고양이, 새, 관상어 외에도 돼지, 닭, 거위 같은 가축이나 뱀, 원숭이, 사슴에서 호환(?) 벌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동물이 가까워진 만큼 우리는 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동물에 대한 상식 중에는 의외로 사실과 다른 게 많다. 잘못 알고 있거나 어설픈게 알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동물을 학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동물에 대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정리했다. 좀 더 알고 좀 더 가까워지자.

(동물들)

우리는 꿈을 겨울잠 자는 대표적인 동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동식물에 관한 상식의 오류 사진》(경당)의 저자 울리히 슈미트는 꿈은 그저 이듬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비축을 위해 휴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완전 무감각 상태에서 추운 계절을 견디는 행위가 겨울잠인데, 잠트는 이때 새끼를 낳기도 한다. 잠을 자면서 새끼를 낳았다가는 새끼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깔려 죽고 말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꿈은 '연구대상'이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약 5개월 동안 누워있는데도 욕창 하나 없이 일어나 산에 올라가는 스테미너, 운동 없이 부동한 자세로 몇 달을 있어도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 것 등은 수수께끼다.

사막에서 목이 마르면 낙타의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아시스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낙타의 혹은 물이 아닌, 지방으로 가득 찬 에너지 저장장치다. 낙타는 몸 전체에 퍼지는 지방을 혹에만 집중시켜 피하지방으로 인한 체온 상승을 막는다. 수분을 체중의 14퍼센트만 잃어도 죽는 사람에 비하면 40퍼센트가 빠져 나가도 거뜬한 낙타는 농도가 매우 진한 오줌과 바짝 마른 똥이라는 나름의 물 절약 비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눈 오는 날, 개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역시 털이 있는 동물이니까 추위에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 반대다. 실내에서 키우는 개는 털이 개량되고, 인간과 같은 온도에서 쾌적함을 느끼게 돼 더욱 그렇다. 눈을 보고 개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색맹인 탓에 눈 색깔을 흰색이 아니라 울긋불긋한 색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에 관한 다른 진실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 개는 걸을 때 발가락만 딛는다. 이는 앞뒷 발의 가운데 발뼈가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인데, 소와 말은 발끝만으로도 걷는다.

코끼리도 작은 발굽으로 된 발가락 끝만이 바닥에 닿는다.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는 원리가 신기하다. '코끼리는 죽을 때 제 무덤을 찾아간다'는 말도 틀린 것이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대부분은 약 60세에 죽는데, 그 이유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모된 이를 여섯 번까지 갈고 나면 더 이상 이가 새로 나지 않아 주식인 풀과 나뭇잎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덜 씹힌 풀은 소화가 안 돼 코끼리는 배가 고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늑속으로 들어가 소화가 잘 되는 연한 풀을 찾는데 이것이 무덤을 찾는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결국 코끼리는 먹을 것을 찾다 진흙탕 속에서 죽는다.



예릴당이 펴낸 '올챙이와 만나요 연못에서' (글 김남길 | 그림 김형준)의 표지 그림

악취가 나고 오물 범벅인 돼지가 더럽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돼지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다. 돼지우리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수 백 마리를 좁은 공간에서 동시에 사육하는 환경적 요인 탓이다. 돼지는 벼룩과 진드기를 비롯한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진흙 목욕' 을 한다. 시원한 진창 속에 몸을 던진 다음, 어느 정도 마르면 몸을 박박 비벼대 깨끗이 떼어낸다.

개구리는 물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다. 개구리는 사막에도 산다. 북아메리카 소노사막에 사는 쟁기발개구리는 깊은 구덩이에서 11개월을 견딘다. 그러다 비가 오면 비로소 식사와 산란을 하기 시작한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맹꽂이류도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에 산다. 물 대신 응결된 안개를 피부로 마시고, 암컷은 수정되지 않은 알들을 겹쳐 낳는다. 알에서는 올챙이 대신 작은 개구리들이 곧바로 부화한다.

태양이 작열하는 적도에도 펭귄이 산다. 펭귄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기온이 아니라 먹이다. 남극에는 차가운 해류와 상승하는 저층수 덕분에 플랑크톤과 물고기가 풍부해 펭귄이 그곳에만 모여있을 뿐이다.

(곤충과 그외의 것들)

달팽이의 껍질은 '뒤틀립 현상' 으로 대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감겨 있다. 달팽이에 얽힌 비밀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달팽이》(지성사)의 저자 권오길은 앞쪽으로 위치한 항문 탓에 배설물이 아가미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화과정에서 꼬이게 됐다고 말한다. 달팽이는 원래 납작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풀이나

채소 외에 종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종이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섬유분해효소는 되새김 위나 맹장에 사는 미생물이 분비한다. 사람은 그 기능이 퇴화됐지만 달팽이는 몸에서 직접 섬유분해 효소를 만들어낸다.

《개미제국의 발견》(사이언스북스)의 저자 최재천은 열대우림에서 개미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많은 곤충의 생활과 특성을 발견했다. 특히 '낙농업' 으로 진디를 '사육' 하는 개미를 주목한다. 개미는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등의 천적으로부터 진디를 보호하고 진디는 식물에서 뽑아낸 영양분을 개미에게 제공한다. 많은 일개미들은 진디로부터 영양분을 거둬들여 전체 식량의 75퍼센트를 유지한다.

비가 오면 지렁이가 땅에 준비하다. 비를 좋아하기 때문일까? 지렁이가 햇빛과 건조함을 피하고 물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비 오는 날 땅위로 기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굴속에 물이 가득 차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땅 위로 기어 나오는 것이다.

언어가 없어 우리와 소통을 못하는 것뿐이지 동물도 인간과 비슷한 욕구와 감정표현을 한다. 일례로, 곤충은 인간이 기침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 폐가 없어 점액이나 습기가 쌓이지는 않지만 목에 식도가 있어 이따금씩 토하는 것으로 목을 깨끗이 한다. 현재, 연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행동 방식과 습성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본능과 의식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진 특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유일한 직립보행 동물인 인간에게 추가된 의무다. [출처]

글 홍이현 기자

동물과 인간사이, 벽을 높이는 몇 가지 오해들

